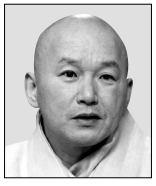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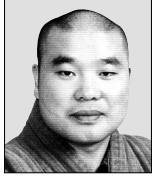
법주사 율화동 캠프
현조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2월 20~21일 경내에서 '그냥 다 괜찮아! 법주사 율화동 캠프'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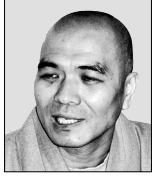
수덕사 정월방생
정목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3월 3일 영천 은혜사와 거조암에서 '수덕사 정월방생'을 실시한다.



104위 신증탱화 정안
덕문 대구 동화사 주지 스님은 2월 12일 경내 대불전에서 104위 신증탱화 정안식을 봉행했다.



휴정대선사 차례제
월우 전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대흥사 표충사에서 '제412주년 서산당 휴정대선사 차례제'를 봉행한다.



제19차 정기총회
퇴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스님은 2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 안심당 3층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안양교도소 설날 떡 보시
도서 서울 도선사 주지 스님은 2월 14일 안양교도소 전 재소자에게 설날 떡을 보시했다. 이날 보시된 떡은 총 560kg이다.

화축 권재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임은 3월 12일 낮 12시 30분 신사동 수아비스 엘리프스에서 불교총지종 교무 조정을 짜와 화축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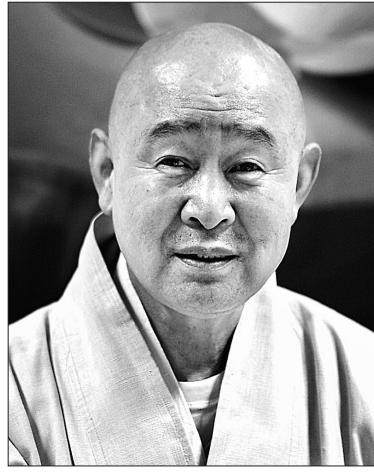
“서울지하철 안전운행 기원합니다”
서울메트로법우회 올해 첫 특별법회



서울메트로법우회(회장 김영만)는 2월 16일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사 내 법당에서 '지하철 무사고 안전운행 기원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김영만 회장은 "지하철 안전은 곧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법회에서 모든 정성들여 모든 지하철이 크고 작은 사고 없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복지 안내자 될 터”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
초대 이사장 정여 스님



범불교종단 참여 이끌어내
지역복지 견인차 역할 담양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부산불교계 복지법인과 기관들을 아우르는 총합체이자 구심점으로서 부산 불교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초대 이사장에 정여 스님(사진)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사장으로 추대된 정여 스님은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부산 불교계 복지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여 스님은 “1998년에 출범한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 및 발전을 이룩했지만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임의단체라는 한계와 아쉬움이 있었다”며 “부산불교계 복지관들의 참여와 결속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사단법인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부산불교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해왔던 주요 사업을 강화하고 실천해 창립 당시 복지를 위한 이념 및 화합 정신을 일궈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앞으로 강화할 주요 사업은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세미나 △빈곤 불교국가 지원을 위한 해외지원 사업 및 선진복지시설 견학 △불교행사 시 소외계층 위한 자비와 나눔 행사 △부산불교복지박람회 개최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연찬회 △불교복지지원 모금 △지원 및 정보 교류 활동 등이다. 정여 스님은 이와 더불어

어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불교복지법인 및 시설의 참여 확대를 꾀했다.
정여 스님은 “아직 모든 시설과 법인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나머지 시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부산 복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단법인 설립에 함께 동참한 사회복지법인은 14개로 공덕향(대표이사 명현)·내원(대표이사 정련), 동주(대표이사 정현), 범어(대표이사 수불), 불국토(대표이사 범산), 해원(대표이사 원하) 등이며 시설은 총 80여개에 이른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불교복지시설은 102개소가 있다. 또한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새롭게 등록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인 진각복지재단의 산하시설인 낙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범불교종단의 참여도 함께 이끌어내고 있다.
정여 스님은 “본 협의회는 부산 불교복지를 선도하는 안내자로 거듭날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장립법회 및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2월 25일 오후 4시 부산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호산 스님, 성역화기금 1500만원
2월 15일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2월 15일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성역화 불사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호산 스님은 “종단의 중요한 사업인 성역화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올해는 성역화 불사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도움을 준 수국사 신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청소년 장학금 1000만원 지원

법일장학회, 산청 대원사서



산청 대원사(주지 묘명 스님) 법일장학회는 2월 13일 대원사 대웅전에서 '제6회 법일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삼장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초·중·고·대학생 10여 명에게 장학금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대원사 주지 묘명 스님은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이 사회의 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명상 대중화 일조에 뜻 모았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인경 스님



3월 9일 명상 대강좌 개강
전문명상지도사 과정 인정

“명상법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명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릇된 명상법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확실히 인정받은만한 명상법을 대중에게 알릴 명상의 대중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한국명상상담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인경 스님(사진)은 2월 17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5층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9일 개강하는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이아카데미 대강좌'의 의의를 이 같이 밝혔다.
명상이아카데미 대강좌는 협회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한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 필수 과정이다.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반(행불선원)과 토요일반(금강선원)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혜거 스님과 용타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서 명상수행을 전파하고 있는 20여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강의한다.
인경 스님은 “하나의 통일된 교육과정을 준비하려 했으나 협회 소속 단체별 성

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우선 최대한 많은 명상수행을 소개하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며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기존 수행자들에게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명상이아카데미 대강좌에서는 초기불교·대승불교·선불교·명상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명상수행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협회는 이 강좌를 시작으로 명상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과 포럼 등

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자격증도 2급과 1급, 전문으로 구분했으며, 소속 단체별 교육과정과 협회 주관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인경 스님은 “지도자들이 모여 1년간 심도 있는 회의를 했다. 전문 단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년간의 수행이 필요하게끔 의견을 모았다”며 “협회 내부 자격관리위원회를 통해 시험과 인터뷰 등을 거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법인 인가를 추진 중이며, 강좌를 녹화해 별도의 온라인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초심자를 위한 명상수행 입문서 발간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후 교육과정을 비롯한 협회 운영의 틀이 완성되면 국가공인자격증 인정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인경 스님은 “명상수행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명상에 대한 올바른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았다. 협회를 중심으로 고통을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공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협회 공신력을 높이고, 소속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한국적인 명상법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법사대 제24회 졸업식

수료생 100여 명 배출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학장 지일)은 2월 14일 동국대에서 제24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에는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과정(5년), 불교석화과정(2년)의 수료생 100여 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한의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경대학.

2 학교소개

-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2016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